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충동성, 자기효능감

서 부 덕* · 최 연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 생활에 급속도로 파고들고 있으며 온라인 세상도 오프라인 세상만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인터넷 안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놀이매체 뿐만 아니라 학습매체로서 인터넷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습과제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방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도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동료 집단을 형성하여 청소년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감안할 때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있어 인터넷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역기능적으로 나타난 것이 인터넷 중독이다.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에게 인성과 사회성의 결여를 유발할 수 있다(Jang, 2000). 그러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영향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미비하며 그러한 특징들이 인터넷 중독의 결과인지 중독자들의 특징이 중독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Jin, Oh, & Choi, 2006). 또한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중독인 사람과 인터넷 중독은 차이가 없으며 자연스런 사회 현상으

로 간주(Groh, 1999)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터넷 중독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릴 만큼 변화가 심하며 동시에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충동적인 사람은 반항적이고 화를 잘 내고 타인에 대한 우호성과 책임감이 적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여 청소년기의 부적응과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Jin, Oh, & Choi, 2006). 반면에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행동을 잘 조직하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다(Bandura, 1977). 또한 Lee와 Kwon(2001)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성이 높은 학생이 충동성이 더 높다고 보고한 것과 Song(1998)은 개인적 자기 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인자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충동성과 자기효능감은 올바른 선택과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터넷중독, 충동성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동성과 자기효능감을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충동성과 자기

* 대구산업정보대학 간호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helena@tpic.ac.kr)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투고일: 2008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24일

효능감에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발달을 위한 영향요인 파악에 기초가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충동성을 파악한다.
- 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 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충동성,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충동성, 자기효능감 정도를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486명은 편의표집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해 Young(1999)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를 Lee, Lee, Kim과 Oh(2000)가 청소년에게 적합하게 수정보완 한 도구이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하위 영역인 인터넷 의존성, 내성, 심리적·신체적 금단증상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독정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개발 당시의 Young(1999)의 분류에 따라 20-39점까지의 응답자를 정상군, 40-69점까지를 경한 중독군, 70-100점까지를 심한 중독군으로 구분하였다. 도구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 충동성

충동성 척도는 Barratt(1985)이 제작한 BIS-II

(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을 Lee(1992)가 번역한 것이다. 총 23문항의 5점 척도로 세 가지 하위 영역인 인지 충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도구는 Sherer, Maddux, Mercandante, Jacobs와 Rogers(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 중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척도를 Lee(2000)가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총 17문항으로 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응답값의 범위가 17-85점까지 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Sherer 등(198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Lee(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이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해당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각 학교에 근무하는 학년 부장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학년 부장 선생님과 함께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목적 및 설문지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배부한 후 연구에 동의하는 학생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ANOVA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충동성, 자기효능감은 실수, 평균, 표준편차,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3)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충동성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

인터넷 중독은 성별, 학교, 부모님의 인터넷 사용에 따라 유의한 차가 없었다. 그러나 성적($F=5.459$, $p=$

.005), 경제적 상태($F=5.565$, $p=.004$), 오랜 기간 인터넷 사용에 대한 어머니($F=12.320$, $p=.000$), 아버지($F=15.447$, $p=.000$), 선생님($F=8.948$, $p=.000$)과 친구($F=6.936$, $p=.000$)의 태도와는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Internet Addi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92)

Characteristic	Category	n	Mean	SD	X ²	p
Gender	Man	241	48.94	19.23	3.457	.064
	Female	243	41.47	16.64		
School	Middle school	227	45.26	18.95	.189	.664
	High school	257	45.13	17.82		
Grade	High	152	47.76	20.0	5.459	.005
	Middle	230	42.32	15.98		
	Low	102	47.82	19.87		
Internet using of father	Using	356	45.36	18.14	1.236	.267
	Not using	126	44.56	19.06		
Internet using of mother	Using	255	45.21	18.38	.012	.912
	Not using	227	45.28	18.36		
Economic state	High	71	48.75	21.02	5.565	.004
	Middle	365	43.71	17.27		
	Low	47	51.68	20.29		
Attitude of mother for long time internet using	Much negative	107	53.99	20.60	12.320	.000
	Little negative	190	45.44	17.73		
	So-so	150	38.50	14.21		
	Little positive	24	44.38	16.26		
	Much positive	10	48.50	24.30		
Attitude of father for long time internet using	Much negative	105	56.51	22.52	15.447	.000
	Little negative	166	43.21	15.74		
	So-so	178	40.20	15.13		
	Little positive	23	44.96	16.13		
	Much positive	9	48.11	21.33		
Attitude of teacher for long time internet using	Much negative	110	52.87	21.64	8.948	.000
	Little negative	90	47.88	19.00		
	So-so	264	41.53	15.69		
	Little positive	6	39.83	11.23		
	Much positive	12	39.08	13.82		
Attitude of friend for long time internet using	Much negative	12	55.92	22.27	6.936	.000
	Little negative	39	47.87	20.49		
	So-so	284	42.22	16.19		
	Little positive	83	47.75	17.33		
	Much positive	65	53.72	22.82		

<Table 2> Impulsiveness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Classification	N	M	SD	F	Post-hoc
Normal(a)	215	59.08	8.09	22.909***	a(b, a/c)
Mild-addiction(b)	219	63.64	7.43		
Severe-addiction(c)	49	64.71	7.56		

***p < .001.

2.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충동성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충동성은 정상군에서는 59.08±8.09, 경한 중독군에서는 63.64±7.43이었으며 심한 중독군에서는 64.71±7.56으로 중독이 심해질수록 충동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상군과 중독군들 간의 충동성은 유의한 차(F=22.90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정상군에서는 63.54±10.31, 경한 중독군에서는 58.63±10.63이었으며 심한 중독군에서는 53.77±12.15으로 중독이 심해질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상군과 경한 중독군, 심한 중독군 간의 충동성은 모두 유의한 차(F=21.60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인터넷 중독, 충동성,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충동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과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r=.280, p<.01), 인터넷 중독과 자기효능감은 약한 부적 상관관계(r=-.288, p<.01)가 나타났다. 또한 충동성과 자기효능감은 강한 부적 상관관계(r=-.665, p<.01)가 나타나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충동성은 높아지며 자기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IV. 논 의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완성의 시기이며 발달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발달에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Jang, 2000).

본 연구에서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충동성은 중독 정도가 심해질수록 충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과 충동성의 관계를 파악한 많은 선행 연구결과(Cho, 2003; Lee, & Kwon, 2001; Jin, Oh, & Choi, 2006, Yoon, 2004)와 일치하며 인터넷에 중독될수록 충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03)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될수록 충동성이 작아진다고 보고하면서 충동성이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라 변하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한다고 하였으며, Kim(1999)은 10대에서 30대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에 따른 충동성이 유의한 차가 없음을 보고하여 인터넷 중독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Li 등(2005)의 연구에서 일시적인 주의력 손상이 강한 충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충동성에 미치는 다른 변수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충동성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내면적 요소 중 자신을 '유능한', '능력있는', '효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효능감'은 청소년기 발달에 중요한 변인이다(Cho, Lee, & Lee, 2004).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중독이 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oon(200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인터넷 중독이 심해질수록 자기효능감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기 쉽고 내성이 적

(Table 3) Self-efficacy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Classification	N	M±SD	SD	F	Post-hoc
Normal(a)	214	63.54	10.31	21.608***	a>b, b>c, a>c
Mild-addiction(b)	219	58.63	10.63		
Severe-addiction(c)	48	53.77	12.15		

***p < .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Internet Addiction, Impulsiveness, Self-efficacy

Variable	Internet addiction	Impulsiveness	Self-efficacy
Internet addiction	1		
Impulsiveness	.280**	1	
Self-efficacy	-.288**	-.665**	1

**p < .01

다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2003)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은 자기효능감과 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으며 동일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Lee, Lee, Paik, Kim과 Shin(2001)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기효능감이 인터넷에 중독 되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중독이 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Jang(2000)도 가상공간에서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기회가 많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이 주도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또는 자기효능감이 높아 질 수 있다고 하여 인터넷 중독과 자기효능감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개방성, 익명성, 쌍방향성의 매력적인 특징(Jang, 2000)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중독 상태가 심해 질수록 정체성의 결여,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 적응에 대한 효능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Song(1998)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효능감 결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 중 특히 사회적응과 대인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파악하는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의 상관관계가 $r=.280, p<.01$, 자기효능감과 의 상관관계가 $r=-.288, p<.01$ 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충동성과 자기효능감이 $r=-.665, p<.01$ 로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중독에 따른 충동성과 자기효능감은 비록 선행연구에서 많이 연구가 되었지만 직접적인 관련변수가 아닐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Suh와 Choi(2006)의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에 따라 파악한 자아존중감도 $r=-.160, p<.01$ 로 낮게 나타났으며 외로움만이 $r=-.428, p<.01$ 의 중정도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선행연구에서 측정하지 못했던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충동성과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연구방법은 2005년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대구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생 4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법으로 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인

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999)이 개발하여 Lee 등(2000)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충동성은 Baratt(1985)이 개발하여 Lee(1992)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등이 개발하여 Lee(2000)가 변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12.0을 이용하여 실수, 평균, 표준편차,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적($F=5.459, p=.005$), 경제적 상태($F=5.565, p=.004$), 오랜 기간 인터넷 사용에 대한 어머니($F=12.320, p=.000$), 아버지($F=15.447, p=.000$), 선생님($F=8.948, p=.000$)과 친구($F=6.936, p=.000$)의 태도에 따라 인터넷 중독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인터넷에 중독될수록 충동성은 증가하며 유의한 차가 있었다($F=22.909, p<.001$).

셋째, 인터넷에 중독될수록 자기효능감은 감소하며 유의한 차가 있었다($F=21.608, p<.001$).

네째,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 간에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r=.280, p<.01$)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과는 약한 부적 상관관계($r=-.288, p<.01$)가 있었다. 또한 충동성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강한 부적 상관($r=-.665, p<.01$)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따라 충동성과 자기효능감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충동성과 자기효능감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나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관계는 미약하고, 충동성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가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충동성, 자기효능감 정도에 대한 결과가 선행연구들 간에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2. 인터넷 중독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보다는 인터넷 중독으로 오는 문제점 중의 하나인 사회적 고립에 따른 사회적응과 대인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적절히 측정할 도구개발이 요구된다.
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arratt, E. S. (1985). *Impulsiveness subtraits: Arousal and information processing*. Motivation, emotion, and personality (pp.137-146). Amsterdam: Elsevier Science.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Chiang-shan Ray Li, Sue-huei Chen, Wei-hao Lin, & Yong-yi Yang (2005). Attentional blink in adolescents with varying levels of impulsivit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39, 197-205.
- Cho, H. J., Lee, H. J., & Lee, C. S. (2004). Development of self-efficacy enhancement program for the adolescent.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Journal*, 13(3), 345-359.
- Cho, Y. R. (2003). *A predictive model for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University, Pusan.
- Grohol, J. M. (1999). *Future clinical direction: professional development, pathology and psychotherapy on-line*. Psychology and the internet (pp.111-14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Jang, I. S. (2000). The study on internet addict of korean juvenile. *Journal of Social Science*, 18, 65-83.
- Jin, S. A., Oh, Y. J., & Choi, M. G. (2006). A study on the impulsiveness with internet addiction of teenager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5(3), 211-224.
- Jue, J., & Kwon, S. M. (2001). Type of problematic behaviors in internet usage and their classification: Based upon domestic cases. *Psychological Science*, 10(1), 93-115.
- Kim, J. B. (1999).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ddicts sub-groups*.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S. J. (2003). *A difference comparison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general self-control, impulsiveness depending on their internet game addiction level*. Unpublished master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rout, R., Patterson, Michael., Lundmark, V., Kiesler, Sara., Mukop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 Lee, C. C. (2000). *Analysis of factors related with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Lee, H. S. (1992). *Impulsivity test*. Seoul: Korean guidance.
- Lee, S. B., Lee, K. K., Paik, K. C., Kim, H. W., & Shin, S. K. (2001).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anxiety, depression, and self efficacy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0(6), 1174-1184.
- Lee, S. H., Lee, S. Y., Kim, E. J., & Oh, S. G. (2000).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and offspring education*. Samsung Life Public Welfare Foundation. <http://welfare.samsunglife.com>
- Lee, S. Y., & Kwon, J. H. (2001). Impulsivity,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communication style of adolescent internet game addic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 67-80.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ong, W. Y. (1998).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on the addictive use of internet*.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Suh, B. D., & Choi, E. H. (2006). Internet

addiction, self-esteem,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Adult Nurse*, 18(4), 653-659.

Yoon, S. J.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impulsiveness, self-efficacy and addictive internet use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http://netaddiction.com/articles/symptoms.htm>

- Abstracts -

Impulsivity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Suh, Boo-Deuk* · Choi, Yeon-H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mpulsivity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Method:** Subjects we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N=486).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rating questionnaire including demographic data, a Korean version of Internet addiction, impulsivity and self-efficacy. **Result:** Impulsivity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22.909$, $p<.001$).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impulsivity ($r=.280$, $p<.01$),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self-efficacy ($r=-.288$, $p<.01$) and between impulsivity and self-efficacy ($r=-.665$, $p<.01$).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re addictive to the Internet the more impulsive and the less self-efficacious.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generalize these results and examine the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more broadly.

Key words : Impulsive Behavior, Self-efficacy, Internet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Polytechnic College University

** Professor, Nursing Departm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